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  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55

# 골리앗에 맞선 다윗

(사무엘상 17:8~17:54)



거대한 골리앗 장군이 대열 앞으로 나오고  
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우렁차게 외쳤어요.

**“사울의 종들아, 잘 듣거라!  
우리가 괜히 다 뛰어나와서 전쟁이랍시고  
벌일 필요가 뭐 있겠는가?  
사나이답게! 장수답게! 일 대 일로 승부를 보자.  
너희 중 누구든 나를 죽일 수 있다면 개끗이 패배를  
인정할 것이다! 어더냐? 겁쟁이들아!  
나를 대적할 자가 한 명쯤은 있을 거 아닌가?”**

무시무시한 골리앗 장군이 조롱을 하고 도발을 하는데도  
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구도 나설 생각을 못 했어요.  
다들 눈치만 보며, 두려워할 뿐이었죠.  
골리앗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진영 앞에 나아왔어요.

그렇게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 
수치스러운 말을 퍼부어댔죠.  
한편, 다윗의 형들 중 세 명이 이스라엘 군대에 있었어요.  
오랫동안 세 아들의 소식을 듣지 못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 
하루는 다윗을 불렀죠.



**“다윗아, 곡식과 빵, 치즈 몇 덩이를 싸 줄 테니  
네 형들을 찾아가 전해주거라.  
형들에게 안부를 전해주고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 
살펴보고 오려무나.”**

**그래서 다윗은 음식을 가지고  
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도착했죠.**

그런데 군사들의 모습이  
다윗이 생각한 것과 너무도 달랐어요!  
다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 
싸울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어 보였거든요.

“어? 무슨 군사들이 이래?  
저기요, 저기요, 무슨 일이 있었나요?  
다들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거죠?”

“아, 인식아. 너는 골리앗도 모르냐?  
저기 블레셋 진영에서  
천둥 같은 목소리로 떠들고 있지 않느냐?”

**“어휴 저런 조롱을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...  
오죽하면 사울 왕께서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 
엄청난 상금을 준다고 하셨겠나.”**

**“상금뿐인가?  
왕의 딸과 결혼도 시켜준다 하셨네.  
아휴, 그러면 뭐 하나고.  
저 거인을 누가 당해내랴 말이야.”**

**다윗은 그런 병사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.**



**“아니, 그렇다고 저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는데  
가만히 있나요?  
저자가 대체 뭐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 
욕하고 비웃냐 말이에요!”**

**어린 다윗의 당돌한 모습에  
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!**

**“뭐, 뭐야? 아니 그럼, 네가 저 골리앗과  
싸우기라도 하겠다는거냐?”**

**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큰형도 황급히 뛰어왔죠.**

**“야, 다윗 이 녀석아!  
양 떼나 돌보지 않고 여기는 왜 왔어?  
너 전쟁이 장난인 줄 아니?  
철딱서니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 
돌아가지 못해?”**

하지만 다윗은 굽힐 줄 몰랐어요.

**“형님, 제가 뭘 잘 못했다고 그러세요?  
제가 뭐, 틀린 말 했나요?  
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 
대체 겁낼 게 뭐가 있겠냐고요!”**



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는  
이스라엘 왕궁에까지 퍼졌어요.  
그 얘기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불러오라고 명령했죠.

“왕이시여, 부르셨습니까?”

“그래. 너는 골리앗을  
두려워하지 않는다던데. 사실이나?”

**“그렇습니다. 제가 저 블레셋  
장수와 싸우고 오겠습니다.”**

**“하하하. 네가 배짱이 제법이구나.  
허나, 배짱만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.  
너는 한낱 어린아이일 뿐이지만 골리앗은 젊었을 때부터  
수많은 싸움을 해온 뛰어난 군인이란 말이다.  
그만하고, 돌아가거라.”**

**“왕이시여, 저는 양들을 돌보던 목동입니다.  
가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, 양들을 물어가려 하면  
저는 용감히 맞서 싸워서 그 녀석들을 물리치곤 했지요.  
골리앗도 마찬가지로 잡습니다.”**

**“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해주시면  
곰이나 사자를 물리친 것처럼 골리앗도  
무너뜨릴 수 있습니다!”**

**다윗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어요.**

**이젠 사울 왕도 다윗을 말릴 수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.**

**“그래, 가 보거라. 네 말대로 하나님께서  
너와 함께하시길 바란다.  
내 갑옷과 투구, 그리고 칼을 너에게 주겠다.  
입어 보거라.”**



다윗은 갑옷을 입고, 칼을 차 보았지만  
몇 걸음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.  
키 큰 사울 왕에 비해 다윗은 너무도 작았거든요.

“왕이시여, 감사하지만 이 옷과 무기는  
저에게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.  
저에게 필요한 것들은 따로 있지요.”

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칠 때 쓰던  
막대기를 손에 쥐었어요.  
그리고 시냇가에서 조약돌 다섯 개를 주었고  
새총처럼 돌을 날릴 수 있는 물매를 챙겼죠.

그러고는 곧바로, 골리앗 장군에게로 나아갔어요.

**“골리앗 장군  
저~기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왔는덟쇼?”**

**“엥? 저 꼬마 녀석은 뭐야? 하하하.  
이스라엘에 이렇게도 인물이 없단 말이나?  
감히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내 앞에 나아오다니.  
네가 나를 들개 취급을 하는구나!”**

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쳤어요.

**“골리앗! 너에겐 거대한 창을 갖고 싸우지만  
나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 
오늘, 너의 머리를 베어서  
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 
존재한다는 걸 보여줄 거야!”**

**“가소로운 놈.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구나.  
오냐, 오거라. 오늘 너를 없애서, 들짐승의 밥으로 줄 것이니!”**

**그렇게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.  
그리고 다윗도 재빨리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죠.**



**그 돌을 물매 위에 올려놓은 다음  
빙빙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 던졌죠!**

**조약돌이 힘차게 날아가더니!  
골리앗 장군의 이마 한가운데에 정확히 명중했어요!  
1초. 2초. 3초... 그리고 곧이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!  
그 거대한 골리앗이, 쿵! 하고 고꾸라진 거예요!**

**“이, 이겼다! 저 친구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!!!  
만세! 다윗 만세!”**

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함성이 터져 나오고.

블레셋 군사들은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.  
정신 차릴 틈도 없이 부리나케 도망가야 했죠.  
그렇게. 하나님을 의지한 소년 다윗이  
자신의 힘만을 믿었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순간.

다윗의 말대로,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 
이스라엘과 함께하심을 알게 되었어요.